

##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

황혜리<sup>†</sup> 이은혜 이세란  
한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년도 중1 패널 2,088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내재적, 외재적 목표, 진로정체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재적, 외재적 목표와 진로정체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내재적 목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내재적 목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학대, 방임, 진로정체감,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sup>†</sup> 교신저자 : 황혜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현동홀 312호  
Tel : 054-260-1280, E-mail : hrhwang@handong.edu

청소년기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발달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Super(1953)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탐색기이며,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자기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함으로써 적절한 진로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최수찬, 원경림, 2013).

개인이 자신의 흥미, 적성, 동기를 마음에 드는 직업의 역할과 연결 짓는 것을 진로정체감이라 하며(Meijers, 1998), 이는 생애주기 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희선, 선우현정, 2015; Skorikov & Vondracek, 2011). 자아정체감의 핵심 요소인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으며, Erikson(1968)은 진로정체감을 삶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Kroger, 2007; Savickas, 1985).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가지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가진 능력과 욕구, 기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진로정체감을 암시하고 있다(윤초희, 2015). 학령기의 아동이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과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과제와 기회들을 탐색하면서 전반적인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것처럼(Erikson, 1968; La Guardia, 2009),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진로에 대한 선호도 및 흥미, 직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등을 토대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해간다(윤초희, 2015). 이러한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

는 것과 잘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목표와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장희선, 윤정이, 2016; Holland & Holland, 1977). 반면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장희선, 윤정이, 2016). 이처럼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인기로 향하는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청소년 시기에 진로정체감을 잘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가족 및 친구의 역할과 사회적 구조 및 시스템 등이 심리사회적 환경의 주요한 변인으로 강조된다(윤초희, 2015).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 학교진로교육 실태 조사’ 연구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공통적으로 진로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로 나타났으며(강원덕, 안귀여루, 2015), 특히 부모양육방식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박지영, 정현숙, 2016; Dyk, 1990).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며 이러한 효능감이 긍정적인 진로행동 결정을 촉진한다는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이후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Wright & Perrone, 2008). 이러한 이론적 모델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양육행동인 학대 및 방임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양육방식은 초기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자녀의 정서, 성격, 자아개념, 행동능력 및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박지영, 정현숙, 2016; 이화순,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자녀의 진로발달이 촉진될 수도 있고 저해될 수도 있으며(박종은, 2007; 박지영, 정현숙, 2016; 송유정, 2006; 장지선, 2003),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정체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선, 2012).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희선, 선우현정, 2015). 이처럼 부모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육유형으로 구분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부정적인 영향의 파급력이 큰 양육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이희선, 선우현정, 2015). 이처럼 학대와 방임을 분리하여 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와 방임을 분리하여 내재적, 외재적 목표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

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로, 10건 중 약 8건 정도가 부모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사회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하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분노를 내면화하여 위축, 정서적 불안정, 우울, 신체적 고통 등의 증상을 표출하기도 한다(선관수, 나동석, 2016; 송순만, 2016). 또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구승신, 박성현, 2007; 송진영, 정영민, 2015; 윤현, 2011), 진로정체감 형성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순만, 2016). 한편 방임은 자녀의 지적, 신체적인 측면에서부터 영적, 도덕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 행동이 결여된 것으로, 훈육을 위한 처벌이나 칭찬이 결여되어 있고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무관심하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2004). 과거에는 방임이 학대의 하위차원으로 다루어졌지만, 학대와 방임의 원인과 영향력이 다르다는 관점과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홍미, 김효진, 2007)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불안, 우울, 공격성 등 심리 내적인 문제를 유발하며(김재엽, 최권호, 2012; 이아영, 유서구, 2011),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적응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적이나 비행 등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 또한 유발한다(김광혁, 2009; 박원경, 김자경, 안성우, 강혜진, 2006; 이호택, 2012). 또한 부모의 방임은 진로

정체감을 낮추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의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송순만(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각각 진로정체감을 낮추는 영향을 가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대와 방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진로정체감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삶의 목표란 개인의 인생 전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Schmuck & Sheldon, 2001), 삶의 목표의 특성과 수립 여부에 따라 각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진다(신중호, 조은별, 윤영, 2014; Palfai, Ralston, & Wright, 2011). 삶의 목표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삶의 질과 내용,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자아정체성과 자아개념의 수립,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소현옥, 2017; Emmons, 1986; Erikson, 1950).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조한나, 2015; Havighurst, 1948), 만약 청소년기에 적절한 목표를 찾지 못한다면 자아정체성과 자아개념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삶의 목표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성수, 2015; 신중호, 진성조, 2013; 장희선, 윤정이, 2016; Emmons, 1986; 2005; Erikson, 1963).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표가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임경용, 2016), 또한 삶의 목표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성숙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손원숙, 2014; 김보경, 2017; 정미나, 노자은, 2016). 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삶의 목표인 것으로 나타나(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삶의 목표는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목표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목표가 지니는 특성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유형의 목표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Eigner, 2001; Headey, 2008; Kasser & Ryan, 1993).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성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의 하위이론인 목표내용이론(GCT; Goal Contents Theory)에 따르면 삶의 목표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구분된다(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내재적 목표란 자기성장,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에서의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목표이며, 대표적으로 관계목표(affiliation goal), 자기성장목표(self-growth goal), 사회공헌목표(community contribution)가 있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성공 등과 같은 외부의 보상이나 타인의 평가, 칭찬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공이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승인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명예목표(fame goal), 부목표(wealth goal)가 있다(박수원, 신중호, 2016; 소현옥, 2017; Deci & Ryan, 2000; Kasser & Ryan,

1996; 2001; Vansteenkiste, Niemiec, & Soenens,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목표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 및 학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Lekes, Gingras, Philippe, Koestner, & Fang, 2010; Sheldon, Ryan, Deci, & Kasser, 2004; Vansteenkiste, Matos, Lens, & Soenens, 2007),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성수, 2015; 조한나, 2015), 확고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소현옥, 2017). 즉, 내재적 목표는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보고된다. 한편 외재적 목표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으며(Kasser & Ryan, 2001), 외재적 목표를 추구할수록 자아실현감, 긍정적 정서, 활력 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인효연, 길혜지, 2017; Kasser & Ryan, 1996). 이러한 외재적 목표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외재적 목표가 진로정체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현옥, 2017; 인효연, 길혜지, 2017). 그러나 외재적 목표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장희선, 윤정미, 2016) 또한 보고되는데, 이는 외재적 목표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실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를 구분하여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재적, 외재적 목표는 개인의 신념, 행동, 가치관 등과 함께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Deci & Ryan, 1985; Sameroff, 1987; Sameroff & Fiese, 1990; Schwartz, 1990), 특히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사회일수록 양육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심리적인 관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Jackson, Mackenzie, & Hobfoll, 2000).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2). 한호중(201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는 내재적 목표와 부적상관, 외재적 목표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방임은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 모두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할수록 내재적 목표는 낮아지며 외재적 목표는 높아지고, 부모의 방임을 경험할수록 내재적, 외재적 목표 모두 낮아짐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그림 1)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부모의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는 부분매개할 것이다.
3. 지각된 부모의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는 부분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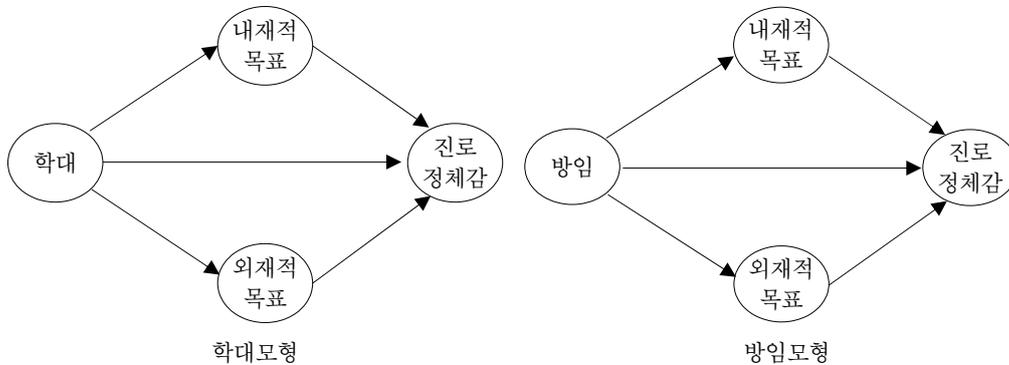


그림 1. 학대 및 방임, 내재적, 외재적 목표,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행되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 중 5차년도인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표본 2,351명 중 측정 변인에 결측값이 없는 2,088명의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측정도구

####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대 척도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다. 측정 문항들(1,2,3,4문

항)은 모두 역채점 문항이기에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역채점된 학대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학대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이 있다. 선우진희(2017)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이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임 척도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다.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내 몸이 나옴,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등이 있다. 선우진희(2017)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0이며, 본 연구에서도 .70으로 나타났다.

### 삶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교육종단연구(NELS 2002)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목표 척도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이루어져있으며, 항목의 수는 각각 11개, 4개이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삶의 목표 척도는 Likert식 척도(1=매우 그렇다, 4=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며, 모두 역채점 문항으로 해당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내재적, 외재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목표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등이 있으며, 외재적 목표의 경우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한익, 김영숙(2016)의 연구에서의 내재적 목표의 신뢰도 계수는 .87, 외재적 목표의 신뢰도 계수는 .69이며, 본 연구에서 내재적 신뢰도 계수는 .83, 외재적 신뢰도 계수는 .51이다.

### 진로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공인규(2008)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역채점 문항으로 역채점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 손연아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9이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논문에서는 SPSS 18.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을 통해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주요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Anderson과 Gerbing(1988)에 의해 제안된 2단계 모형 분석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의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여 직접·간접·총효과를 확인한 후 유령변수를 생성하여 개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관련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 변인들은 모두 99%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의 검증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때 보다 안정된 추정을 위해 문항들을 적절히 묶는 방법인 문항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학대	-					
2. 방임	.25**	-				
3. 삶의 목표	-.14**	-.32**	-			
4. 내재적 목표	-.17**	-.35**	.81**	-		
5. 외재적 목표	-.06**	-.20**	.86**	.41**	-	
6. 진로정체감	-.07**	-.21**	.31**	.35**	.18**	-
평균(M)	1.62	1.82	3.10	3.30	2.90	2.96
표준편차(SD)	.58	.49	.33	.37	.43	.58

주. \*\* $p < .01$ ,  $N = 2,088$

묶음(item parceling)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을 세 묶음 혹은 네 묶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Matsunaga, 2008)을 따라 문항을 세 묶음 혹은 네 묶음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개념인 학대 및 방임의 경우 문항을 묶지 않고 원 문항(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면 다중구성개념인 내재적 목표의 경우 이론에 근거하여 하위척도를 유지하는 방법인 내용기반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et al., 2013). 따라서 동일한 삶의 목표 척도를 사용할 뿐 아니라 목표내용이론에 근거하여 내재적 목표를 세분화한 조한익, 김영숙(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내재적 목표를 개인·관계·지역사회지향 총 3묶음으로 문항묶음 하였다. 한편 5문항으로 이루어진 외재적 목표는 내재적 목표에 비해 척도 수가 많지 않고 하위 구조를 유지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할 때 설명도가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재적 목표의 경우 문항묶음을 실시하지 않고 원 문항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단일개념으로, 무작위배치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을 세 묶음으로 구성하였다.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대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학대가 .51~.87, 내재적 목표가 .60~.73, 외재적 목표가 .12~.58, 진로정체감은 .85~.87로 나타났다. 4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15개의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외재적 목표1(.12)과 외재적 목표5(.34)를 제외한 13개의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의 일부가 0.5 이하인 경우 부분 개념 타당도를 확보하게 된다(허준, 2013). 따라서 학대모형이 부분 개념 타당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방임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방임이 .35~.80, 내재적 목표가 .60~.73, 외재적 목표가 .12~.57, 진로정체감은 .85~.87 으로 15개의 측정변인 중 방임1(.35), 외재적 목표1(.12), 외재적 목표5(.34)를 제외한 측정변인들이 0.5 이상의 표준화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방임모형 또한 부분 개념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때 학대모형의 일부 측정변인들(외재적 목표1, 5)과 방임모형의 일부 측정변인들(방임1, 외재적 목표1, 5)의 표준화 계수의 값이 0.5 이하로 나타났으나 제거하지 않고 해당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의 내용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4문항, 5문항으로 이루어진 방임, 외재적 목표의 척도에서 추가적으로 문항을 제거할 경우 문항이 척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소현옥(2017)에서도 외재적 목표와 방임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5 이하로 나타났으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당 문항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한 것을 본 논문에서 참고한 것이다.

다음으로 각 모형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연구에서 가장 흔히 검토되는  $\chi^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으며 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 정확한 적합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chi^2$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각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의 경우 .05이하는 매우 좋음, .08이하는 양호, 1이하는 보통으로 판단된다(우종필, 2012). 이에 비추어 볼 때 각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구조모형의 적합도검증

각 방임모형과 학대모형에서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chi^2$ 차이 검정을 통해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먼저 학대모형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chi^2$ 와 적합도지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은 내재관계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hi^2$ 차이 검정을 통해 우수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각 모형의  $\chi^2$ 결과값을 살펴보

표 2. 학대모형과 방임모형의 측정모형적합도 지수

구분	$\chi^2(df)$	CFI	TLI	RMSEA(90%신뢰구간)
학대모형	833.032(df=84, $p < .001$ )	.930	.912	.065(.061 ~ .069)
방임모형	717.155(df=84, $p < .001$ )	.932	.914	.060(.056 ~ .064)

표 3. 학대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chi^2(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부분매개)	833.032(df=84, $p < .001$ )	.930	.912	.065 (.061 ~ .069)
경쟁모형(완전매개)	834.417(df=85, $p < .001$ )	.930	.913	.065 (.061 ~ .069)

표 4. 방임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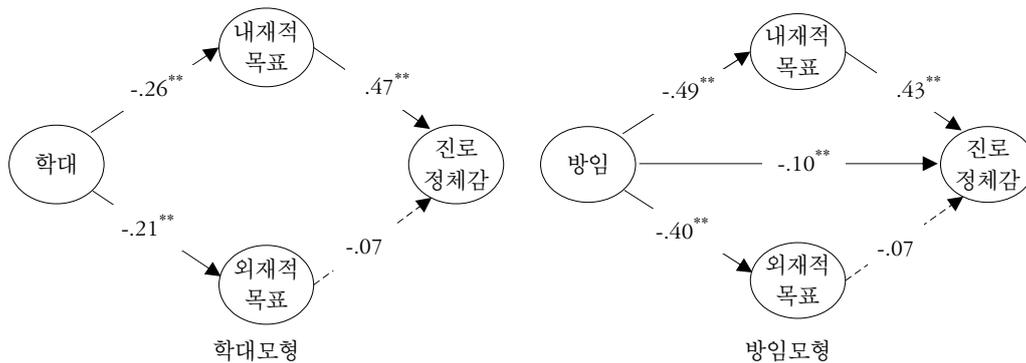
구분	$\chi^2(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부분매개)	715.155(df=84, $p<.001$ )	.932	.914	.060 (.056~.064)
경쟁모형(완전매개)	727.721(df=85, $p<.001$ )	.930	.914	.060 (.056~.064)

면, 연구모형(부분매개)은  $\chi^2(84, N=2,088)=833.032, p<.001$ , 경쟁모형(완전매개)은  $\chi^2(85, N=2,088)=834.417, p<.001$ 로 나타났다.  $df=1, p<.05$  일 때 유의한 차이값은 3.84이며,  $\chi^2(1)=1.385(<3.84), p<.05$  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부분매개)이 경쟁모형(완전매개)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쟁모형(완전매개)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방임모형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모형의  $\chi^2$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부분매개)은  $\chi^2(84, N=2,088)=717.155, p<.001$ , 경쟁모형(완전매개)은  $\chi^2(85,$

$N=2,088)=727.721, p<.001$ 로 나타났다.  $df=1, p<.05$  일 때 차이 값은 3.84로  $\chi^2(1)=10.566(>3.84), p<.05$  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부분매개)이 경쟁모형(완전매개)보다 더 적합하므로 연구모형(부분매개)을 채택하고자 한다.

구조모형 검증

학대모형의 경우  $\chi^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하여 완전매개모형을 최종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경로를



주: \*\* $p<.01$

그림 2.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와 경로계수

제외한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부모의 학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낮으며 내재적 목표가 낮으면 진로정체감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임 모형의  $\chi^2$  차이검증을 통해 부분매개모형을 최종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부모의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낮으며 내재적 목표가 낮으면 진로정체감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개효과 검증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 95%에서 1,000개의 표본을 무선으로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전체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랩핑은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존재할 때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허준, 2013). 따라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령변수를 생성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는 통계적으

표 5. 학대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대 → 내재적 목표	-.21**		-.21**
학대 → 외재적 목표	-.26**		-.26**
내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47**		.47**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07		-.07
학대 → 진로정체감		-.11**(-.13 ~ -.08)	-.11**

주. \*\*  $p < .01$

표 6.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개별매개효과(Phantom변인)

경로	B	SE	$p$ 값
학대 → 내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102***	.019	.000
학대 →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012	.013	.367

주. \*\*\*  $p < .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확률 .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와 진로정체감에서 내재적 목표는 완전매개하고 외재적 목표는 매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 95%에서 1,000개의 표본을 무선으로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방임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전체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존재할 때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허준, 2013). 따라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령변수를 생성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외재적 목표는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확률 .3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임과 진로정체감에서 내재적 목표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나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한

표 7. 방임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방임 → 내재적 목표	-.40**		-.40**
방임 → 외재적 목표	-.49**		-.49**
내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43**		.43**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07		-.07
방임 → 진로정체감	-.10**	-.18** (-.23~-.14)	-.28**

주. \*\*  $p < .01$

표 8.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개별매개효과(Phantom변인)

경로	B	SE	$p$ 값
방임 → 내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249***	.047	.000
방임 → 외재적 목표 → 진로정체감	.035	.036	.334

주. \*\*\*  $p < .001$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내재적, 외재적 목표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진로정체감을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들(손연아 등, 2014; 송순만,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삶의 목표와 그 하위유형인 내재적, 외재적 목표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방향·성취지향 목표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김민주(201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호중(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이 내재적, 외재적 목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며, 또한 삶의 목표의 하위유형인 내재적, 외재적 목표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삶의 목표와 내재적, 외재적 목표는 진로정체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손연아 등(2014)의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목표와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를 밝힌 조한익, 김영숙(2016)의 연구에서 내재적, 외재적 목표와 진로정체감이 정적 상관을 나

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이 삶의 목표를 가질수록, 또는 내재적, 외재적 목표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할수록 내재적 목표가 낮아지며, 그로 인해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대가 낮아질수록 내재적 목표는 높아지며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며, 관계목표, 자기성장목표, 사회공헌목표 등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소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 동기를 마음에 드는 직업 역할과 연결 짓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송진영, 정영민(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모의 학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외재적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은 진로정체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부모의 학대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재적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내재적 목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이 지각한 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낸 이희선, 선우현정(201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 삶의 목표가 자아정체감을 높이고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동욱, 손원숙, 2014; 김충기, 2001; 이상인, 2001;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장희선, 윤정이, 2016)과 같은 맥락의 연구결과이다.

넷째, 한편 학대모형과 방임모형에서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때 외재적 목표는 매개변인으로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이는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재적 목표를 증진시키는 개입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인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목표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성공목표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장희선, 윤정이(2016)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반면 외재적 목표가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영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김보경, 2017; 소현옥, 2017), 그리고 중단 연구를 통해 외재적 목표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조한익, 김영숙(201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외재적 목표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마다 그 결과가 상이한 바, 추가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내재적, 외재적 목표,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었으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 내재적, 외재적 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힌 것은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는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기에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행복감 또한 낮아지며, 낮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장희선, 윤정이, 2016). 또한 낮은 진로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장희선, 윤정이,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중간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내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재적 목표를 증진시키는 것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개입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일생동안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가진 능력과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상담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내재적 목표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지각된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삶의 목표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신 스스로 수립하고 추구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개인차 변인이다. 상담 장면에서도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내담자의 진로정체감을 다룰 때 지각된 과거의 환경을 다루기보다 현재 내담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 목표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모의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내재적 목표 증진을 위한 상담적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방임이 갖는 부정적 파급력이 학대 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방임은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정적 양육방식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가시적이지 않아 발견되기 어렵고, 메스컴 등 보도에서도 학대의 피해를 주로 부각해왔기 때문이다(정의중, 2011). 따라서 그동안 방임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의정, 이상균, 2009).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학대에 비해 방임이 삶의 목표, 진로정체감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방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현대의 가족구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어 의도하지 않은 부모의 방임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양혜린, 이재은, 한기주, 2014). 즉,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방임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및 부모-자녀 간 관계에의 개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는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낸 반면, 외재적 목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진로상담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외재적 목표의 유의미하지 않은 매개효과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외재적 목표를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활력, 행복, 자아실현 등을 부적적으로 예측한다(Kasser & Ahuvia, 2002; Kasser & Ryan, 1996).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 욕구 등을 인식하고 이를 마음에 드는 직업의 역할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타인의 칭찬이나 외부의 보상을 추구하는 외재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대인관계에서의 행복이나 성장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내재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이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2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좀 더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변화와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진로정체감 간의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영향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 및 외재적 목표만을 매개변수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39-764.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 박성현 (2007). 초등학생의 직업성숙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1), 119-131.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총론, 24(2), 27-45.
- 김동욱,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민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표 불안정성 및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2017). 청소년의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충기 (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수원, 신중호 (201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급에 따른 목표설정의 자율성과 목표 몰입-목표내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25-54.
- 박원경, 김자경, 안성우, 강혜진 (2006). 학습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과 학교적응 정도. *정서·행동장애연구*, 22(3), 301-323.
- 박종은 (2007). 여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정현숙 (2016).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21-37.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선관수, 나동석 (2016).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 29-52.
- 선우진희 (2017).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주의집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현옥 (2017). 중학생의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순만 (2016).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유정 (2006).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 정영민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17(1), 107-131.
- 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중호, 조은별, 윤영 (2014). 대학생의 생애 목표 유형 분석과 진로의식 및 대학생생활과의 관계 탐색. *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 신중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2). 지각된 부모의 양육특성이 물질적, 사회적 목표를 매개로 학업자기개념 및 입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제6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양혜린, 이재은, 한기주 (2014).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8(2), 41-62.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윤초희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

- 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 윤 현 (2011).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8, 97-124.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 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 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의정, 이상균 (2009). 빈곤가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4, 113-138.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창선 (2012). 생활적응과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유학준비생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택 (2012).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논단*, 11(1), 25-52.
- 이화순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학업성적 차이 연구. *아동교육*, 12(2), 137-150.
-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자아정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인효연, 길혜지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 임경용 (2016).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연구: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선, 윤정이 (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익중 (2011).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107, 1-33.
- 조한나 (2015). 시간관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생애목표, 목표불안정성의 매개효과 및 시간관 프로파일별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중단적 구조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30(4), 783-81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최수찬, 원경림 (2013).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4,

- 35-62.
- 한호중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모형: 기초편.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홍미, 김호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yk, P. H. (1990). *Family relations factor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Eigner,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s a dominant life go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muck, P., & Sheldon, K.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Gottingen: Hogrefe.
-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058-1068.
- Emmons, R. A. (2005). Striving for the sacred: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relig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731-745.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Havi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Mckay.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2), 213-231.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Distributions of personalities within occupations and fields of study.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5(3), 226-231.
- Jackson, T., Mackenzie, J., & Hobfoll, S. E. (2000). Communal aspects of self-regulation.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275-30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137-146.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Ashland, OH: Hogrefe & Huber.
- Kroger, J. (2007).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Thousand Oaks, CA: Sage.
- La Guardia, J. G. (2009). Developing who I am: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identities. *Educational Psychologist*, 44(2), 90-104.
- Lekes, N., Gingras, I., Philippe, F. L., Koestner, R., & Fang, J. (2010).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8), 858-869.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0(3), 191-207.
- Palfai, T. P., Ralston, T. E., & Wright, L. L. (2011). Understanding university student drinking in the context of life goal pursuits: The mediational role of 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69-174.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 7-26). New York: Guilford Press.
- Sameroff, A. J. (1987). The social context of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73-291). New York: Wiley.
- Sameroff, A. J., & Fiese, B. H. (1990). Transactional reg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119-1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vickas, M. L. (1985).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329-337.
- Schmuck, P., & Sheldon, K. M. (2001).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Seattle: Hogrefe.
- Schwartz, S. H. (1990). Individualism-collectivism: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2), 139-157.
- Sheldon, K. M., Ryan, R. M., Deci, E. L., & Kasser, T. (2004). The independent effects of

- goal contents and motives on well-being: It's both what pursue and why you pursue 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4), 475-486.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h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2-714). New York: Springer.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Vansteenkiste, M., Matos, L., Lens, W., & Soenens, B. (2007). Understanding the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on exercise performance: The conflicting role of task and ego involvemen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771-794.
- Vansteenkiste, M., Niemiec, C. P., & Soenens, B. (2010). The development of the five mini-theorie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historical overview, emerging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T. C. Urban, & S. A. Karabenick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6, 105-166.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 Wright, S. L., & Perrone, K. M. (2008). The impact of attachment on career-related variabl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posed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future resear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2), 87-106.

원 고 접 수 일 : 2017. 09.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1. 19

게재결정일 : 2018. 01. 12

## The Influence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Hye Ree Hwang

Eun Hye Lee

Se Ran Lee

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neglect and career ident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used 2,088 10<sup>th</sup> graders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a longitudinal study with survey data obtained from 7<sup>th</sup> graders in 2014.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SPSS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with AMOS23.0. Outcome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buse and neglect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insic goals, extrinsic goals, and career identity. Moreover,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identity. Second, intrinsic goals completely mediated parental abuse and career identity, and partially mediated parental neglect and career identity. In each model, extrinsic goals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These outcomes can be applied by counselors to enhance career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abuse and neglect.

*Key words* : abuse, neglect, career identity, intrinsic goal, extrinsic goal